

†찬미예수님

사랑하는 하모니 님들~

민족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6/19)을 맞이하여, 지난 주일 복음 말씀처럼 죄를 지은 형제를 일곱번이 아니라 일흔일곱 번까지라도 용서하는 마음으로 우리 민족의 평화 통일을 위해, 그리고 우리의 이웃, 마음이 불편한 상대를 위해 기도하는 한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청하면 하느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는 말씀과 믿음아래, 기도속에 용서하고 화해하는 한 주 보내면 좋겠습니다.

6월 넷째주 공지 드립니다.

하모니 후원 - 감사 생미사 봉헌

그동안 하모니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물심양면 챙겨주시고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 카드와 더불어 생미사를 드리자는 의견이 있었고 지난 회합시 이를 추천하기로 결정 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날 (6/26) 하모니 결성 후 특별히 심적/물질적으로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 생미사 봉헌(\$100)을 하겠습니다. 많은 하모니님들 미사에 참석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남의 성경모임

한동안 방학이었던 조 마오로 수녀님과의 '만남의 성경모임'이 6/25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만남속에 좋은말씀 나누는 은총의 자리에 많은 분들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일시: 6월 25일 토, 오전10시-오후12시

장소: 소망방 (사제관 건너편 방)

대상: 30대 이상 성경말씀 나눔에 관심있는 미혼남녀 (신자/비신자 포함)

2016 사순 피정 특강: 채홍락 시몬 신부님

지난 3월 시몬 신부님의 사순 피정 특강을 녹음한 CD를 교육분과 변귀태 성우 안토니오 형제님께서 하모니에게 특별히 선물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특강 CD 내용을 링크로 보내 드립니다 (링크 작업에 도움을 주신 김정호 이냐시오 형제님,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속에 많은 은총 받으시길 바랍니다. 특강 링크: <https://www.dropbox.com/sh/urvrkw4bhx5vnx/AAC199YNt4dZv9DkqeH6YN57a?dl=0>

2016년 연수 (7월 30-31일) - 산타크루즈 Villa Maria del Mar 피정센터(<http://www.villamariadelmar.org>)

이번 연수는 기초 교리를 중심으로 본당 신부님의 강의와 관련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됩니다. 1박2일 짧은 기간 동안의 강의만으로는 쉽게 잊혀질 수 있는 교리 내용을 미리 접하고 익혀서 연수동안 재검토하며 질문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신부님께서 추천하신 책이 한국에서 도착 했습니다. 책 제목은 '예비신자 궁금증 105가지'이며 쉽고 재미나게 쓰여져 모든 분들이 연수 전에 손쉽게 읽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연수 전 필독 자료는 1) '예비신자 궁금증 105가지' 책과 2) '가톨릭 핵심 교리상식' 입니다 (사진 첨부). 책은 \$10, 교리상식 자료는 무료 입니다. 연수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필수로, 참석치 못하는 분들 또한 원하시면 자료를 구입/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신부님께서 청년들을 위해 추천해주신 기초 교리를 위한 책이니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연수 참가신청 받습니다. 회장단에게 알려 주세요.

창세기 연수: 8/26-8/28 - 산타크루즈 근방 피정의 집

창세기 성경공부를 마치고 연수에 참석 못 하신 분들 중 관심있는 분들의 신청 바랍니다. 북가주 창세기 연수로 여러 본당의 교우분들이 참석하실 예정입니다.

새로오신 분

김 봉 (John Kim) 예비신자

환영합니다! 앞으로 하모니 안에서 함께 성장하며 즐겁게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월 생일 - 축하합니다!



6월 29일 - 이의천 베드로
태어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6/26일 주일 복음 말씀

<예수님께서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마음을 굳히셨다.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스승님을 따르겠습니다.”>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9,51-62

51 하늘에 올라가실 때가 차자, 예수님께서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마음을 굳히셨다. 52 그래서 당시에 앞서 심부름꾼들을 보내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모실 준비를 하려고 길을 떠나 사마리아인들의 한 마을로 들어갔다. 53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분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이다. 54 야고보와 요한 제자가 그것을 보고, “주님, 저희가 하늘에서 불을 불러 내려 저들을 불살라 버리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55 예수님께서서는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56 그리하여 그들은 다른 마을로 갔다. 57 그들이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스승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58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들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를 기댈 곳조차 없다.” 59 예수님께서서는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이르셨다. 그러나 그는 “주님, 먼저 집에 가서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60 예수님께서서는 그에게, “죽은 이들의 장사는 죽은 이들이 지내도록 내버려 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라.” 하고 말씀하셨다. 61 또 다른 사람이 “주님,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62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쟁기에 손을 대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언제나 사랑합니다~

2016 하모니 회장단

전진영 베로니카 (510-229-2464)

박보라 율리아나 (917-817-8908)

하모니 harmonycatholic@gmail.com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enter
6226 Camden Street
Oakland, California 94605
T 1-510-553-9434

www.oakcc.org

